

동북아에서 제주 고산리 신석기 문화의 위치

강창화 (제주고고학연구소)*

1. 연구 배경

高山里遺蹟¹⁾은 新石器初期文化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後期旧石器 最末期에서 新石器初期로 넘어가는 轉換期 유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1991-92년 지표조사와 1994년부터 3차에 걸친 고산리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후기구석기 전통의 세형모돌(細石核), 세형돌날(細石刃), 尖頭器, 뚜르개(石錐), 각종 밀개(圓形搔器, 搔器), 긁개(scraper), 자르개(削器), 矢柄研磨器, 망치돌, 礫石 등의 석기와 함께 原始無文樣의 植物性 纖維質이 혼입된 古土器²⁾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고산리 유물조합은 후기구석기에서 신석기초기문화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문화양상, 즉 후기구석기의 세형돌날문화(細石刃文化)가 지속되면서 초기신석기의 產物인 兩面剝離 石鏃과 原始形 古土器가 출현하는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양상을 동북아 전체의 틀 속에서 보면,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priamur)과 연해주(primorye), 중국 동북부 松花江유역의 松嫩平原과 三江盆地, 日本列島 등 동북아 전역에서 후기구석기 최말기(更新世末)에서 신석기초기(完新世初)로 연결되는 전환기의 문화적 양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priamur)과 연해주(primorye)지역에서 후기구석기 最末期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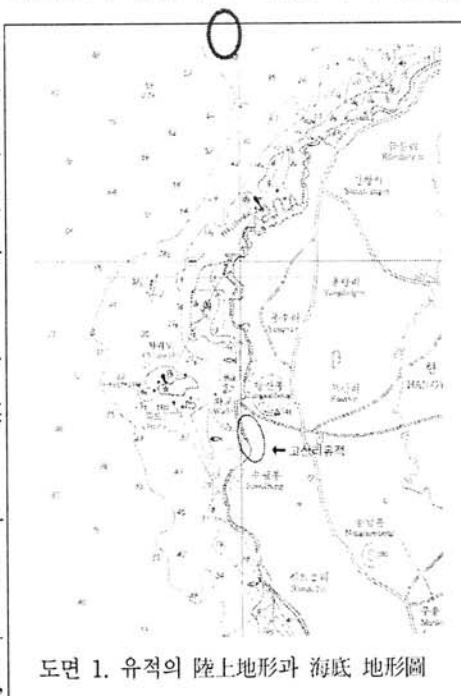
* 문학박사(고고학),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

1) 고산리유적은 제주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고산리에서 해안포구로 이어지는 '자구내'라는 하천을 중심으로 서쪽 해안일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도상의 위치는 동경 126°12', 북위 33°17'이다. 이 지역은 해발 15~17m의 해안단구상의 평탄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지형은 특히 고산에서 대정읍 모슬포 사이의 제주도 남서부 지역이 잘 발달되어 있다. 고산리유적은 1987년 고산리 해안가에 인접한 '자구내마을' 남쪽의 농경지에서 침두기 등 타제석기 3점이 처음으로 발견되고 태선용기문토기가 채집된 후 제주대학교박물관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당시 바람과 유수로 인해 문양이 거의 퇴적되지 않아 전체 층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층위에 따른 유물 분류보다는 지점별 유물 출토 및 공간양상에 의해 유적 편년과 문화층서(文化層序)가 파악되었다. 유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점의 층위양상은 흑갈색부식토층(표토층, 경작층)-흑갈색사질토층(I층)-흑색풍화토층(II층)-생토층(III층, 화산쇄설층)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물은 I층과 II층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발굴에서 나온 석기는 박편을 포함하여 18,000여점이고 지표조사에서도 6,200점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토기는 파편 상태로 530여점이 출토되었다.

2) 여기서 古土器라 함은 토기발생기의 그릇을 이르는 명칭이다. 일례로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절대연대치 10,000B.P. 이전에 해당되는 古土器의 形態는 纖維質(植物, 獸毛)混入土器, 原始無文樣土器, 條痕文土器, 圓孔文土器, 隆起文(豆粒文)土器, 押捺押印文土器, 押型文土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열도 승문초창기의 세석기와 공반하여 출토되는 토기는 크게 原始無文樣土器, 隆起文土器, 條痕文土器, 圓孔文土器로 나뉜다.

신석기초기로 전환되는 시기는 절대연대 13,000 B.P.를 상한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11,000~10,000B.P.경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지역 전환기의 특징은 후기구석기 최말기 전통의 細石核을 중심으로 각종 細石器, 무문양 식물성 섬유질을 혼입한 低火度の 条痕文系土器와 始原形의 水平隆起文土器 등의 古土器가 共伴하는 정형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후기구석기 최말기의 수렵과 채집 및 어로를 병행하는 生業經濟를 유지하면서도 古土器를 생산하여 함께 사용한 이 지역 轉換期의 문화는 노보페트로브카(Novopetrovka), 크로마투하(Gromatukha), 가샤(Gasha)유적으로 대표되는 오시포브카(Osipovka)문화이다.

日本列島는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先土器時代)에 細石器와 층위적으로 共伴하여 原始無文樣, 隆起文·条痕文, 圓孔文, 爪形文土器 등의 古土器가 출현하고 있다. 이 古土器는 隆起文系土器로 관동지방 동경근처의 神奈川縣 가미노(上野)에서 출토된 末角圓底의 隆起線文土器와 서북구주 센부꾸지(泉福寺)에서 출토된 豆粒文土器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古土器文化層의 탄소연대는 13,000~12,000 B.P.경이다. 결국 日本列島에서의 縄文草創期(BC.12,000~8,000)유적은 고토기가 발견되지 않는 홋카이도(北海道 地方)를 제외하더라도 100군데가 넘는다.



도면 1. 유적의 陸上地形과 海底 地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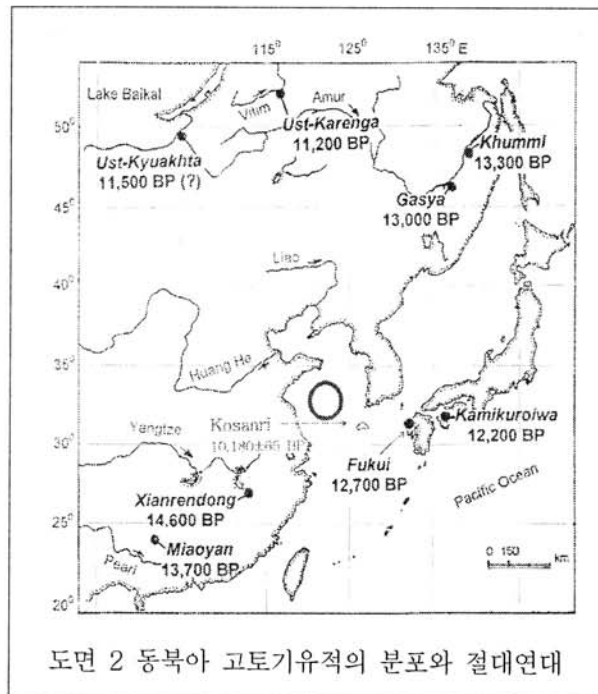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韓國本土)에는 아직 전환기를 다룰 수 있는 문화단계가 없다. 물론 영남내륙지방의 청도 梧津里遺蹟 4層에서 출토된 一群의 土器(梧津里式土器)가 있기는 하지만 학자들간의 의견이 다르며, 유적시기의 상한설도 轉換期가 아니라 남부지방 隆起文系土器의 成立 前段階이자 細石器가 共伴하지 않는 在地系土器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최고의 토기로 알려진 용기문계토기를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와 축을 같이하는 동아시아의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한국 隆起文土器의 編年(上限 8,000B.P. 하한 4,000BP)과는 다른 파격적인 학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견해는 한반도 용기문토기는 일본의 초창기 승문토기의 하나인 용기문토기와 시기적 혹은 문화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이들 토기는 동북아 초기단계의 신석기토기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용기문토기의 발생기를 토기출현기인 12,000B.P.까지 소급시켰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鰲山里 木炭試料의 연대치(12,000±50B.P.)를 한반도 용기문토기의 상한으로 인정하고, 남해안 용기문토기 문화층(연대도 패총시료연대 6,100B.P.以後)은 해수면 상승이전에 해당되며 남부해안지방의 패총 용기문토기 문화층은 전복 혹은 교란되었을 가능성(牛峰里 單一文化層의 論)을 제시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통해 일본열도와 대륙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韓國本土³⁾에 주변 지역의 초기신석기문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遺物組合相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4,000~5,000년간의 문화적 공백기를 자연스럽게 채우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해안 용기문토기는 일본의 縄文草創期 용기문토기와는 기형(圓底), 문양의 시문기법,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용기문토기와 공반되는 후기구석기 전통의 석기조성(細石核, 細石刃, 尖頭器, 石鏃, 搔器, 彫刻器 등)이 남해안 용기문토기 문화층에서는 그 공반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해안 용기문토기가 上老太島의 剥片石器, 壬伯里의 細石



도면 2 동북아 고토기유적의 분포와 절대연대

核과 共伴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 유물조합은 아니다.

따라서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의 특징인 후기구석기 최말기전통의 細石核을 중심으로 한 각종 兩面加工 石器組成을 보이면서 低火度の 古土器가 출현하는 신석기문화는 현재 한국에서 고산리 초기신석기문화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

이같은 高山里 初期新石器文化를 구성하는 고고학적 자료들을 동북아 초기신석기문화라는 廣域的 觀點에서 동일문화권으로 보고, 러시아의 아무르강유역(priamur)과 연해주(primo-ryie), 중국 동북부지역, 日本列島 지역의 초기신석기 단계와의 비교 접근을 통해 고산리문화의 동북아속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학자들의 견해

고산리 초기신석기 문화에 대한 제학자의 추정연대폭은 상한을 12,000~10,000 B.P로, 하한은 8,000~6,000 B.P.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소속연대는 결국 한국최고의 토기로 알려진 부산 동삼동패총 출토 원시무문토기, 용기문토기, 오산리식 용기문토기보다 앞서는 초기신석기단계 유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동북아 전체의 대표적인 비교 유적은 아무르강 중류역의 크로마투하와 노보페트로브카,

3) 한반도라는 용어는 식민사관에 의한 용어로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韓國本土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용어는 이미 일부 역사학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하류유역의 가샤유적, 연해주 우스티노브카유적, 일본열도 구주지역의 福井洞穴, 泉福寺洞穴, 용기문 四国地方의 上黒岩을 들고 있다. 문화의 연관성은 동북아 통일문화권,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본열도의 구주지방, 한국 용기문토기문화권 등으로 집약된다.

<표 1> 高山里遺蹟에 대한 諸學者의 見解

學者	比較 資料	所屬 時期
李清圭	高山里式土器段階의 設定, 濟州島 有文土器時期의 先行段階	7,000-5,000 B.P.以前
壬孝宰	日本 上黒岩遺蹟 6層의 絶代年代, 아까호야 火山災層	12,000-8,000B.P.
高才元	日本縄文草創期-早期의 遺物 比較, 石礫의 後行 可能性 提示	12,000-5,000B.P.
李東注	高山里式纖維質土器(条痕文土器)와 隆起文土器와 同一時期	12,000-8,000B.P.
河仁秀	隆起文土器 先行段階, 梧津里遺蹟, 우스티노브카3遺蹟 遺物比較	12,000-8,000B.P.
李憲宗	高山里式土器 古土器 類型, 아무르沿海州의 遺物相 比較	12,000-9,000B.P.
崔夢龍	아무르가샤遺蹟, 우스티카렌가, 日本福井洞窟, 泉福寺, 上黒岩遺蹟	12,000-10,000B.P.中心
吳蓮淑	南海岸早期(隆起文土器) 以前段階, 東北亞 初期新石器 關聯	12,000-10,000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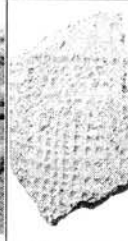
결국 제학자들이 제시한 비교 자료나 이에 따른 소속시기에는 다소 異見이 있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아무르 연해주지역의 古土器時期, 일본의 縄文草創期 文化와 비교되는 후기구석기에서 신석기초기로 이어지는 轉換期-初期新石器遺蹟임을 인정하고 있다.

3. 고산리문화의 전개와 위치설정

그 동안 조사를 통해 후기구석기 전통의 세석핵(細石核), 세석인(細石刃), 첨두기(尖頭器), 석추(石錐), 원형밀개(圓形搔器), 소형밀개(小形搔器), 굽개, 삭기(削器), 홈날석기, 양면석기(兩面石器), 가공흔석기(加工痕石器), 시병연마기(矢柄研磨器), 망치돌, 양석(礫石) 등의 석기와 함께 원시무문양의 식물성 섬유질(纖維質)이 혼입된 고토기(古土器)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산리 유물조합상은 후기구석기 최말기(12,000 B.P.)에서 신석기초기문화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문화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기구석기의 세석인문화(細石刃文化)가 지속되면서 초기신석기의 산물인 양면박리(兩面剝離) 석촉과 원시형 고토기가 출현하는 복합적인 문화양상을 띠고 있다.

<표 2> 고산리유적 출토 토기의 형식분류

形式→ 区分↓	I		II		III	IV	V
	IA	IB	IIA	IIB			
文様形態							
外面文様	植物性纖維質	無文様	隆起細線文	隆起太線文	押型方格文	押捺刺突文	押捺之字文
内面狀態	植物性纖維質	물손질	물손질	물손질	물손질	물손질	물손질
胎土成分	粘土+纖維質	粘土+砂粒質	粘土+纖維質	粘土+砂粒質	粘土+砂粒質	粘土+纖維質	粘土+砂粒質
口緣形態	直立, 内傾	直立, 内傾	直立	直立	直立(?)	直立	直立
底部形態	平底	平底	平底	平底	平底	平底	平底
推定器形	鉢形, 深鉢形	鉢形, 深鉢形	鉢形	大鉢形	鉢形, 深鉢形	鉢形, 深鉢形	鉢形, 深鉢形

고산리에서 확인되는 토기는 식물성섬유질토기(ⅠA形式), 무문양토기(ⅠB形式), 용기평행선문토기(ⅡA形式), 용기태선문토기(ⅡB形式), 압형방격문토기(Ⅲ形式), 압날자돌문토기(Ⅳ形式), 압날지자문토기(Ⅴ形式)로 세분할 수 있다(표 1).

먼저 식물성섬유질토기(ⅠA形式)는 세석핵과 함께 각종 석기들과 공반 양상이 뚜렷하며 전체 토기의 점유율이 85% 이상으로 나타나 1기에서 3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문양토기(ⅠB形式)는 식물성섬유질토기(ⅠA形式)와 공반되기는 하나 1기의 석기군과의 공반관계가 약한 증거가 김녕리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1기에는 공반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형방격문토기(Ⅲ形式)와 압날자돌문토기(Ⅳ形式)는 산리문화의 제주도내 확산단계인 제2단계 토기로 파악되며 석기조합과 공반한다. 한편 압날지자문토기(Ⅴ形式)는 SI 구역의 층위상황에서는 식물성섬유질토기(ⅠA形式) 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초기단계의 용기태선문토기는 석기와 공반되지 않으며 그 수량도 극히 미약하여 고산리 토기문화의 최종단계인 3단계의 토기군으로 파악된다. 다만, 평행용기선문토기(ⅡA形式)는 식물성섬유질토기(ⅠA形式)와 석기조합과의 공반상이 인정되므로 고산리문화 후기단계에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산리 석기유물의 형식분류와 통계를 통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후기구석기에서 신석기초기문화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등장하는 궁시문화(弓矢文化)의 결정체인 석촉이 전체 성형석기 중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 점이다.

고산리석촉은 크게 기부의 형태에 따라 무경식(Ⅰ式), 유경식(Ⅱ式), 첨·원기식(Ⅲ式)이 있다. 다시 무경촉은 기부평기형(ⅠA式)과 기부만입형(ⅠB式)으로 분류되고 유경촉은 직선

형(ⅡA式), 곡선외반형(ⅡB式), 곡선내만형(ⅡC式), 결입양익형(ⅡD式)으로 분류된다. 반면 어형(Ⅲ式)은 삼각어형(ⅢA式), 세장어형(ⅢB式), 결입어형(ⅢC式)으로 분류된다. 또 첨원기식석촉은 첨기식(ⅣA式), 원기식(ⅣB式)으로 분류된다.

이들 석촉의 점유율은 ⅠA·ⅡA式-ⅡC式-BⅡ式-Ⅲ式-DⅡ式-ⅠB式-ⅣA·ⅣB式 순이다. 1997년 발굴에서는 모두 혼재되어 출토되었지만 고산리 A구역 발굴시 각종 석기조합과 함께 무경식(Ⅰ式)만이 출토되기도 했다. 따라서 명확하게 각 석촉 형식내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제주도 각 지역의 관련시기 석촉과 지점별 유물출토양상을 고려 할 때 ⅠA3, ⅠA5, ⅠB2, ⅠB3, ⅠB4, ⅡA3, DⅡ式이 선행형식으로 파악된다. 가장 늦은 단계까지 남아있는 형식은 ⅡA1, ⅡB, ⅡC式이며 고산리 석촉의 특징은 어형(Ⅲ式)석촉인 점으로 미루어 어로와 관련가능성이 높다. 석질과 형식으로 볼 때는 ⅠA3, ⅠA5, ⅠB2, ⅠB3, ⅠB4, ⅡA3은 아무르와 연해주, 일본열도와도 일부 유사성을 보인다.

첨두기의 비율은 전체 성형 석기 중에 5%미만으로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 고산리 첨두기는 모두 양면박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대체로 고산리 첨두기는 선단부와 양측록(兩側綠)에 잔손질(二次加工)했고 대부분 길이가 5cm 이상 된다. 형태적으로는 길이(全長)와 폭(幅)의 비가 3 : 1이상 되는 것들이다. 신부 횡단면은 대부분 렌즈형과 능형이다. 평면 형태는 크게 유엽형(Ⅰ式), 목엽형(Ⅱ式), 타원형(Ⅲ式), 능형(Ⅳ式), 삼각형(Ⅴ式), 유설형(Ⅵ式), 결입형(Ⅶ式)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첨두기 중에서 유엽형(Ⅰ式) 양면조정 첨두기는 동북아 후기구석기 최말기 전통을 갖고 출발하는 고산리문의 1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석기조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有舌形(Ⅵ式) 첨두기는 석촉의 제작방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양면석기의 2차 가공수법이 존재하면서도 퇴화된 형식된 대표적인 형식이 결입형 첨두기(Ⅶ式)이며 양면가공의 석촉과 동일한 법으로 가공되는 소형화된 舟形石核의 용도로 활용된 첨두기인 삼각형 첨두기(Ⅴ式)형태도 있다.

대체로 첨두기는 전형적인 수렵용 첨두기인 유엽형(Ⅰ式), 목엽형(Ⅱ式)에서 어로와 수렵이 병행되는 혼합형 첨두기인 삼각형(Ⅴ式), 결입형(Ⅶ式)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유물의 공반상은 확실하지 않으나 유엽형(Ⅰ式)·목엽형(Ⅱ式)·유설형(Ⅵ式)→ 타원형(Ⅲ式)·능형(Ⅳ式)→ 결입형(Ⅶ式)·삼각형(Ⅴ式) 첨두기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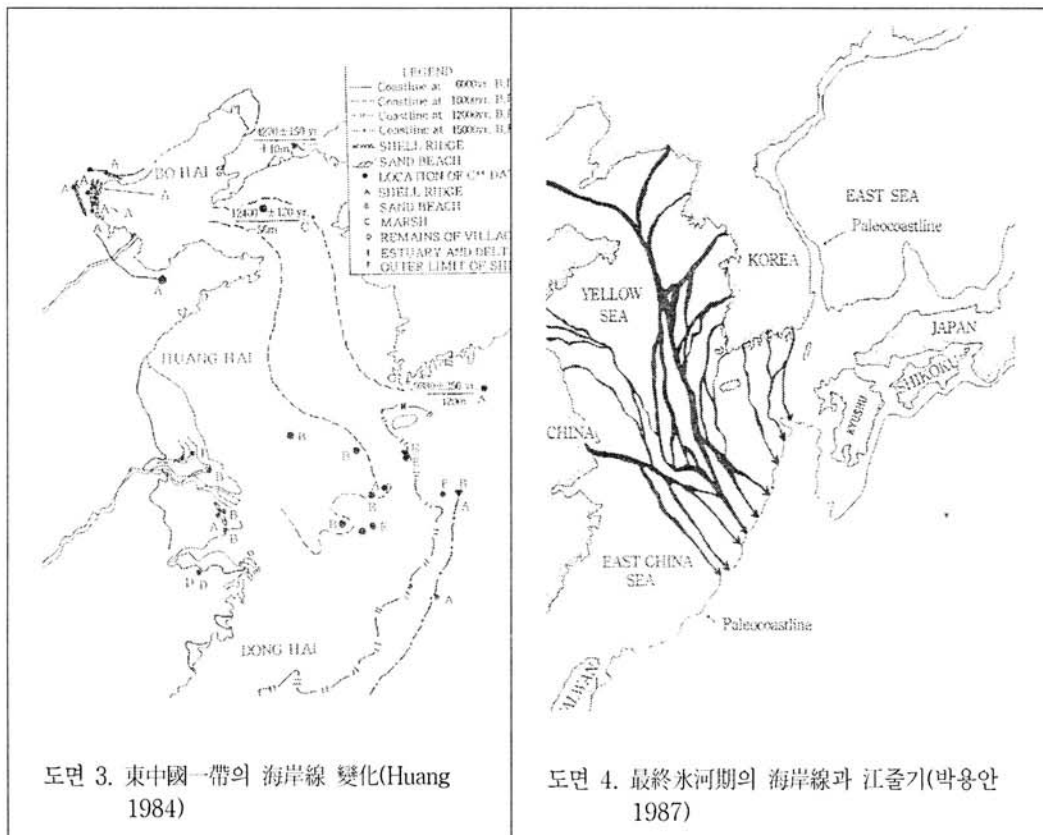
고산리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후기구석기의 발달된 대각선 또는 다박리면 새기개가 전혀 확인 되지 않고 부정형의 새기개(彫器)만 소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산리 새기개는 소재 박편의 타격축에 대한 새기개면의 각도는 경사지게 처리된 경사날(斜刃形)에 가깝다. 따라서 새기개의 퇴화 형식이거나 새기개의 정형성을 상실한 부정형 새기개(彫器)로 보아진다.

또한 고산리 초기신석기문화 1기의 특징적인 석기조성은 정형화된 손톱형밀개(圓形搔器)와 뚜르개(石錐)이다. 이 유물은 아무르·연해주의 초기신석기(第1-3段階), 일본열도의 승문

초창기의 양상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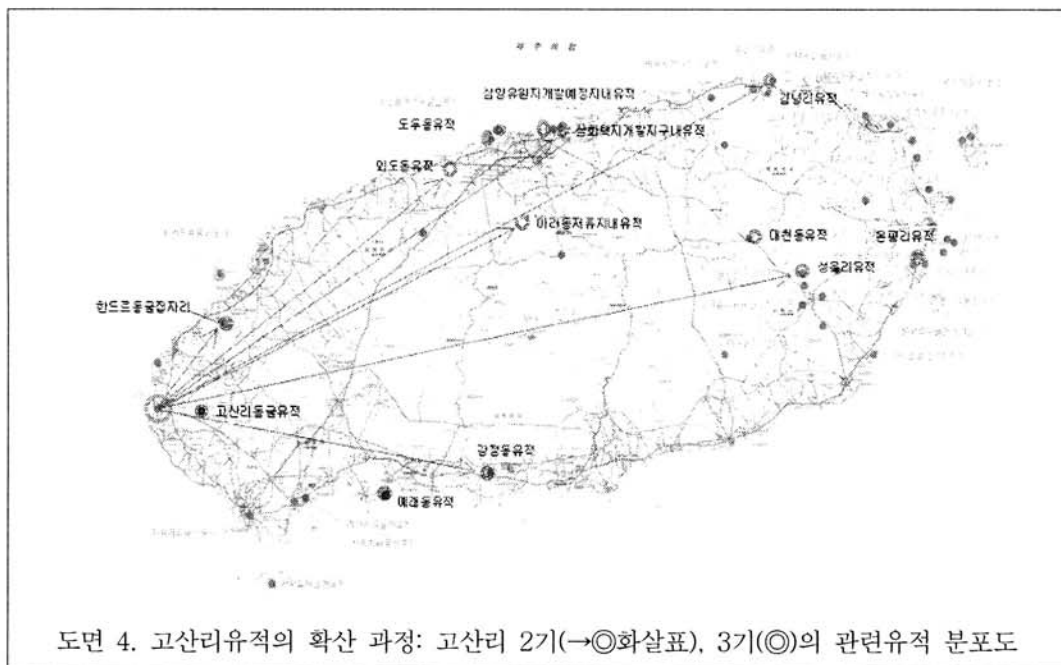
고산리 세석핵은 모두 후기구석기 종말기에 해당하는 쇠퇴기 세석핵이다. 용별기법(湧別技法)에 의한 전형적인 단면 썰기형, 측면 주형(舟形)의 석핵은 보이지 않고 부정형의 세석핵만 존재한다. 한편 석핵 스폴과 세석인은 모두 3cm 미만인 아주 소형의 것들이 대부분인 점으로 미루어 몸돌 자체가 소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산리 석기 조성의 특징으로 양면 잔 눌러떼기(2次加工)의 석촉, 각종 양면석기, 찔두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전형적인 세석핵과 새기개(搔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찔두기, 양면석기, 석촉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썰기형 세형몸돌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시기는 고산리유적의 초입시기라는 설정이 가능해진다. 그러한 정형성을 보여주는 유적이 연해주 우스티노브카 III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원공조흔문토기와 함께 양면석기, 양면 잔손질된 화살촉이 발견되는 반면 대각선 새기개와 썰기형 세형돌날이 사라지고 있다. 물론 세형돌날의 외형을 가진 소형 몸돌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수량은 현격히 줄어든다. 이 유적연대의 상한은 10,000 B.P. 경으로 잡고 있다. 실제로 고산리유적의 탄소연대 최고측정치는 $10,180 \pm 65$ B.P.가 나왔다. 따라서 고산리유적 초입시기(1期) 유물 조합은 아무르강 하류와의 연대를 비교하여 적용하면 11,000~10,000 B.P.에 上限을 둘 수 있다.



이 시기는 해수면 상승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고산리로 문화의 전파나 수렵 집단의 수월한 이동은 적어도 10,000 B.P. 이전에 가능했으며 이는 각종 해수면 혹은 해수 준(海水準)의 변동 자료에서 파악된다.

고산리 초기신석기문화의 발전기인 2기는 섬으로 고립된 상태로, 나름대로의 수렵집단의 생계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시기를 고산리 초기신석기문화의 도내 확산과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고산리식토기와 다양한 석촉의 대량 생산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증거를 남긴 대표적인 유적이 감녕리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세석핵 소재 반파기법, 박편의 인부를 조정하여 능조정 한 뒤 박리한 방법이 주로 확인되며 II B, II C 式 석촉이 주류를 이룬다. 양면석기는 발견되나 전형적인 찔두기, 뚜르개, 부정형 새기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3> 제주도 신석기 초기-조기단계 유적과 출토유물

内容→ 遺蹟↓	離隔 距離	海拔	出土 遺物	
			土 器	石 器
高山里洞窟遺蹟	5km	30m	隆起帶文, 隆起線文, 押捺爪形文, 条痕文土器	
月令里洞窟遺蹟	10km	20m	押印三角点列文土器, 押捺圓形文土器	石鏃, 剥片, 矢柄研磨器
外都洞遺蹟	37km	15m	高山里 I A, V 形(之字文)土器	尖頭器, 石鏃, 剥片
三陽洞遺蹟	45km	20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隆起線文土器	無茎式尖頭器, 無茎式石鏃, 금개
道頭洞遺蹟	40km	15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隆起文土器	石鏃
龍潭洞遺蹟	42km	20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剥片
我羅洞遺蹟	38km	350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細線隆起紋土器	細石刃, 剥片
古城里遺蹟	35km	200m	細線隆起文土器	
金寧里遺蹟	90km	20m	高山里 I A, I B, III 形式 土器	石鏃, 尖頭器, 금개, 加工痕石器, 細石核, 細石刃
新川里洞窟遺蹟	85km	15m	平行細線隆起文土器	
大泉洞遺蹟	70km	300m	条痕文土器	有茎式石鏃
城邑里遺蹟	85km	170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隆起文土器, 押印点列文土器, 条痕文土器	
溫平里遺蹟	92km	20m	押引文, 条痕文, 無文樣土器	打製石斧
江丁洞遺蹟	32km	65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細線隆起紋土器, 点列文土器	石鏃, 尖頭器, 鎔개, 加工痕石器, 細石核, 細石刃
猓來洞遺蹟	27km	20m	植物性纖維質土器(I A 形式)	石鏃

고산리초기 신석기문화의 쇠퇴기이자 종말기인 3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확인되는 용기문토기의 제주유입과 맞물린다. 이 시기의 석기는 공반관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삼양동 유적에서 세장한 저변부 직선형의 첨두기와 무경식석촉이 용기문토기와 함께 출토된 바 있다. 용기문토기 집단은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중산간지역까지 거주 영역이 확대된다. 심지어 제주와 전남 해안의 중간 지점인 여서도에서도 교류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제주내 동일시기 비교유적으로 제주시 공항확장부지내 발굴에서 식물성섬유질토기(I A 形式), 무문양토기(I B 形式)와 함께 IIb 式 석촉이 공반 출토되며 제주시 외도동 유적에서는 식물성섬유질토기(I A 形式), 무문양토기(I B 形式), II A1 式 석촉이 공반한다.

4. 결론과 요약

고산리신석기문화는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기(11,000~10,000 B.P.)는 고산리식섬유질토기[高山里式土器]와 좀돌날[細石刃]·좀돌날몸돌[細石核]·유엽형 첨두기 등이 석기가 공반되고, 2기(10,000 ~9,000 B.P.)는 고산리식토기·압날자돌문토기와 삼각형 첨두기·무경식석촉 등이 함께 나타나며, 3기(9,000

~8,000 B.P.)는 세선용기문토기가 출현하고 유경식 석촉은 잔존하지만 좀돌날몸돌은 소멸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고산리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크게 3기로 나누어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고산리 신석기문화의 전개양상

段階(年代)	石器構成	土器構成
第1期 (11,000-10,000B.P.)	上下端 兩面調整 細石核, 柳葉形(I式)·有舌形(VI式)尖頭器, I A3·I A5·I B2 ·I B3·I B4·II A3·IV A·IV B式石鏃, 손톱형달개, 뚜르개, 不定形彫刻器	植物性纖維質土器(I A形式)
第2期 (10,000-9,000B.P.)	半破調整剝片調整 細石核, 兩面石器, 橢圓形(III式)·菱形(IV式)·三角形(V式)·抉入形(VII式)尖頭器, II A1·II B·II C·III式石鏃의 大量 生産	植物性纖維質土器(I A形式), 無文樣土器(I B形式), 押型方格文土器(III形式), 押捺刺突文土器(IV形式)
第3期 (9,000-8,000B.P.)	細石核消滅, 細長型 基部平基式尖頭器, II A1·II B·II C式石鏃	無文樣土器(I B形式), 隆起平行線文土器(II A形式), 押捺之字文土器(V形式)

결국 고산리 초기신석기문화는 발달된 수렵 중심의 생업체계를 유지한 집단의 문화로 동북아 전체의 전환기의 특징인 후기구석기 최말기 세석인문화의 전통 속에서 각종 양면가공 석기 등을 생산해냈다. 특히 이러한 구석기전통의 석기와 함께 저화도의 원시형 고토기인 식물성 섬유질토기(高山里式土器)를 사용한 한국 초기신석기문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동북아시아 초기신석기유적의 절대연대에 의한 비교표

年代	Amur江 上流域 以北	Amur江 中流域	Amur江 下流域	沿海州	松嫩平原	三江盆地	中國其他	韓半島 東北部	韓半島 中東部	韓半島 南海岸	日本列島	濟州島 高山里
13,000BP. ——	Usi'kakha I 12,595±150 11,505±110 Usi'karenga 11,240±120	Gromakha (13,240±120) ----- Usi'Ulma (12,000-10,500)	Hummi (13,260±100) Gashya (12,960±120)	-----	-----	-----	東青仙人洞 (14,000-9,000 ?)	-----	-----	-----	羅井 3 (12,700±500) 上黑岩 9 12,165±600 泉福寺 (11,540±740)	
11,000BP. ——	Usi'karenga 10,750±60	Gromakha II Novopetrovka (10,400±70)	Gashya (10,870±190) Gorcharka I (10,590±60) (9,890±230) Hummi (10,345±110)	Usinovka 3 (11,000- 10,000)	-----	-----	臺北南莊頭 (10,815±140 -9,690±50) 東青盤皮岩 (10,370±870 -9,550±1,100)	-----	-----	-----	上黑岩 6 10,095±320 泉福寺 (10,500±200)	高山里 1期 (10,180±65)
9,000BP. ——		Novopetrovka (9,765±70) Osinozoe lake Sergevka	Suchna83호유구 (8,565±65) -----	Cherlov -Viorola (10,000- 7,000) -----	羅拉縣 C -----	-----	東青彭頭山 (9,100±200 -7,815±100)	-----	-----	塔子溝 4層 東三期89層		高山里 2期 高山里 3期
7,000BP. ——		Gromatu Kurbajevsk	Kondon居住址 Gashya2居住址 Suchu	----- ----- Rudnaya -Prisan	-----	新開流下層 新開流上層 (5,430±90)		羅達庫島 Boisman II 西浦鎮 II	----- 高山里 V 高山里 III 地境里 I 居住址	東三期 ----- (5,820±140)		
5,000BP. ——		-----	Kondon3居住址 Voznesenovka -----	-----	-----	-----		西浦鎮 III 西浦鎮 IV 西浦鎮 V	高山里 IV地區 -----			

참고문헌

- 康昌和, 2000, 「濟州 初期 新石器文化와 對馬島·西北九州」, 『耽羅文化』21.
- 강창화, 2002, 「濟州島 初期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해양교류의 고고학』, 제26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 강창화, 2005a, 「濟州島 新石器研究의 現況과 課題」, 『濟州文化財研究』2,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 연구소.
- 강창화, 2005b, 「濟州島 新石器文化의 形成과 展開」, 『제주도의 고고학』, 제13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강창화·김종찬, 2001, 『제주도 천연동굴내 문화재분포조사 보고서』, 제주도.
- 강창화·오연숙, 1998, 「濟州地方의 新石器時代 土器에 대한 小考」, 『제주학, 세계로 미래로』, 제주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 강창화·오연숙, 2003, 『濟州高山里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
- 高才元, 『濟州島 高山里 石器의 分析研究』,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원, 1996, 「高山里 遺蹟 出土 打製石器의 形態的 分析」, 『濟州島史研究』5, 제주도사연구회 학술세미나.
- 박근태, 2008, 「제주 강정동유적 조사개보」, 『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2008년 한국신석기학회 추계학술대회.
- 박용안, 1994, 「韓國黃海沿岸의 第4期 後期 및 홀로세(現世)의 海水面과 氣候」, 『黃海沿岸의 環境과 文化』, 학연문화사.
- 송은숙, 2004, 「지자문토기의 발생배경」, 『한국신석기연구』제7호, 한국신석기연구회.
- 吳蓮淑, 2000, 『濟州島 新石器時代 土器 變遷에 대한 研究』,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숙, 2000, 「濟州島 新石器時代 土器의 形式과 時期区分」, 『호남고고학연구』12, 호남고고학회.
- 오연숙, 2004, 「濟州島 新石器時代 遺蹟과 遺物」,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 李東注, 199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 유문토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주, 1998, 「韓國 初期新石器時代의 文化的 性格」, 『전환기고고학』, 한국상고사학회.
- 이영덕, 2004, 「남해안과 제주 신석기토기의 전개양상」,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 研究』, 학연문화사.
- 이청규·강창화·고재원·오연숙, 1998, 『濟州高山里遺蹟』(圖版), 제주대학교박물관.
- 李憲宗, 1998,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 성격과 신석기시대로의 이행과정」, 『전환기

고고학』, 한국상고사학회.

任孝幸, 1995, 「韓日 文化交流史의 새로운 發掘資料」, 『濟州 新石器文化의 原流』,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장용준, 2006 『韓國旧石器의 製作技法과 編年研究-石刃과 細石刃遺物相石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鄭永和, 1977, 「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査: 新發見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崔夢竜, 1999, 「濟州島 鐵器時代 前期 支石墓社會의 階級의 發生」,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학술심포지엄.

河仁秀, 1997, 「嶺南地域 隆起文土器의 再檢討」, 『嶺南地域의 新石器文化』, 제6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대회.

하인수, 2006, 『嶺南海岸地域의 新石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濟州文化藝術財團, 2008, 「제주시 지방하천(한천외 4개하천) 수해복구공사 예정구역내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제주유적보사보고 2008-13.

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研究所·시베리아지부 고고민족학연구소, 2004, 『아무르주 노보페트로브카-III유적 발굴조사보고서(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КАХ ПАМЯТНИКА НОВОПЕТРОВКА-III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2003 ГОДУ)』.

要島義明, 1994 「旧石器から縄文へ」, 『新視點 日本の歴史』原始篇, 新人物往來社.

王小慶, 1995 「中国における土器の登場と製作技法の発展」, 『東アジア·土器の起源』, 東北福祉學.

藤山龍造, 2001, 「神奈川県下における有舌尖頭器の変遷」, 『利根川』.

梶原洋, 1998, 「シベリア·極東の更新世-完新世移行期と土器の起源 The Transitional Period of Pleistocene-Holocene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erms of the Origin of Pottery」 『シンポジウム: 更新世-完新世移行期の比較考古学 Symposium on the Comparative Archaeology of the Pleistocene-Holocene Transition』, 東京都立大学 人文学部 史学科 考古学研究室・国立歴史民俗博物館・春成秀爾研究室.

ニーナ・コノニェンコ(訳: 要島義明), 1999, 「東アジア地域に於ける更新世後期から完新世初期への石器製作技術の移行」, 『土曜考古』第23号, 土曜考古学会.

Alla Garkovik(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and Ethnography of Peoples of Far East, Russia), Original Ancient Ceramic Artifacts from Sites of Primorski Territory, 1992.V. Medvedev, 1993, <Early Neolithic of the Lower Cis-Amur>, 『제2회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논문집』.

Anatoly P. Derevianko · Vitaly E. Medvedev, 1995, 「The AmurRiver Bassin as one of

the Earliest Centers of Ceramics in the Far East」, 『東アジア・極東の土器の起源』 東北福祉大学 国際シンポジウム.

Yaroslav V. Kuzmin, Sara Hall, Michael S. Tite, Richard Bailey, Jeanette M. O'Malley, Vitaly E. Medvedev, 2000, Radiocarbon and thermoluminescence dating of the pottery from the early Neolithic site of GASYA (Russian Far East): Initial Results, Quaternary Science Reviews.

РОССИЙСКАЯ НАУКА СИБИ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ФОНД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ЧЕЧЕНСКО-ИНГУШСКО-КАРАЧАЕВО-ЧЕРКЕ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КАХ ПАМЯТНИКА НОВОПЕТРОВКА—III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2003 ГОДУ. 2004.